짜면 물 타 먹고 싱거우면 간장을 넣어 먹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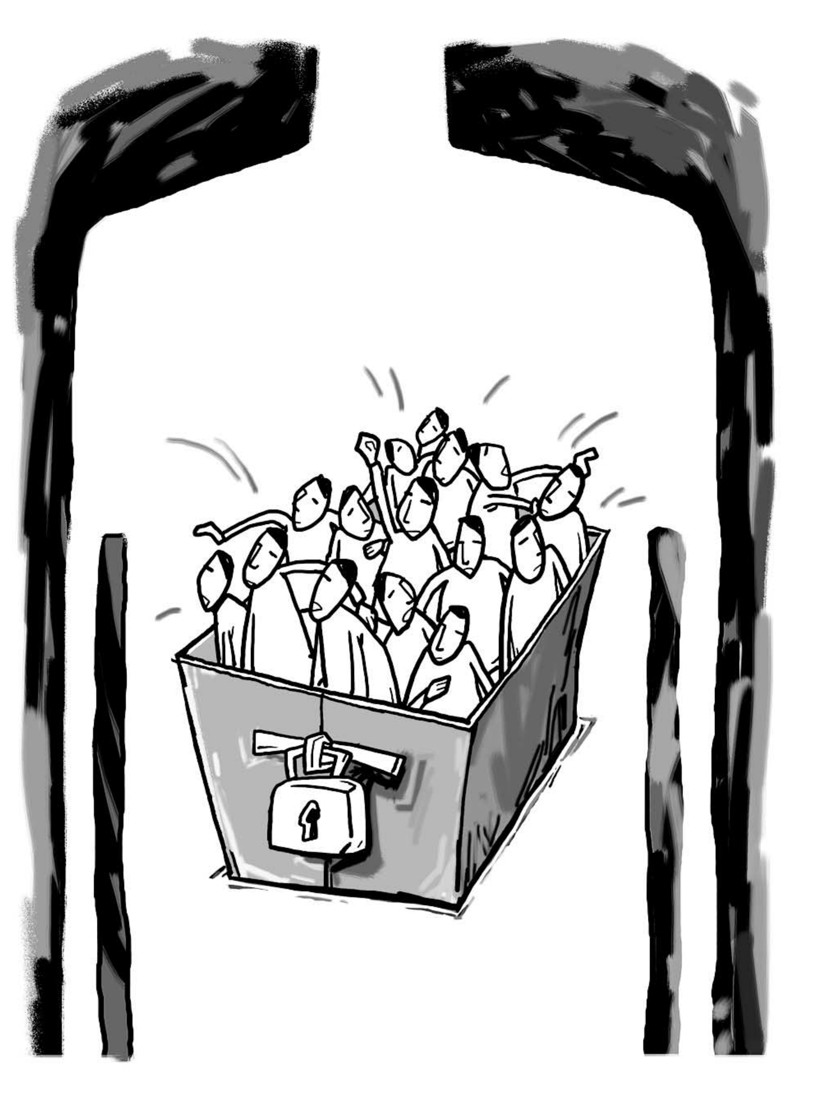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차원대로, 그릇대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릇대로 출현하신 거라면 바로 우리가 옷을 벗을 때도 생사천에서 벗게 하고 또 내보낼 때도 생사천에서 내보낸다 이겁니다. 자기 차원대로 말입니다. 금이면 금대로 만나게 하고 은이면 은대로 만나게 하고, 까마귀면 까마귀대로 만나게 하고 말입니다. 또 오무간지옥에 갇힐 거라면 아주 무명천에다 가두고 말입니다.

무명천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너무나 마음에 복수심이나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가둬두는, 영혼을 가둬두는 감옥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잘 보세요. 감옥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감옥이 왜 생겼겠습니까! 천차만별로 그렇게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감옥이 생긴 거죠. 현실에 있기 때문에 바로 무(無)의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배하는 것은, 만법천에서 내보내면 생사천에서 가려서 내보낼 때에 오무간지옥으로도 보내고, 칼산지옥으로도 보내고, 무명천으로도 보내고, 또 화탕지옥으로도 보내고 여러 군데로 분리해서 다 보내는 것입니다. 묘한 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 따로 없으니 현실에서 잘 관조하라고 했습니다. 천차만별로 사생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 나 아닌 대상을 놓고 믿으면서
> 극진히 정성을 들인다 한다면
> 그건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 맹종하는 것입니다
> 그건 노예입니다!

어느 스님이 길을 가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지저귀고 있더랍니다. 무슨 소리를 하나 그러고 들어보니까, "스님, 스님! 제가 까마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가 지금 오백 년이 됐습니다." 한 번 까마귀로 모습을 받으니 거기에서 벗어날 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스님이 제 모습을 한 점이라도 잡숴주신다면 저는…." 이 까마귀 모습을 벗겨주십시오, 이거거든요. "너는 까만 짓을 잘해서 어떻게 희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니까 "비록 거죽은 까마나 속살은 하얗습니다." 이러거든.

여러분도 참 거죽으로는 못생기고 못났고 보잘 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마음이 아름답고 착하고 슬기롭고 지혜롭고, 내면적으로 언제나 자기를, 자신을 믿고 만법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아마 거죽은 비록 그렇지언정 속은 하얄 겁니다. 백옥 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즉시에 까마귀 모습을 벗겨줬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길 하면 옛날 얘기처럼 들으시는데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옛날이나 미래나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돼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항상 공(空)했다, 공했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난 게 주인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성신이…, 그 행동 하나하나 하고 마음 찰나찰나 바뀌지면서 돌아가는 것이 공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질서를 가르쳐서 질서를 지킵니까? 사생 그 자체, 까마귀 얘기 한 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인연을 만나서 서로 고생을 하고 이러는 것도 당연하지마는 고(苦)를 누가 가져다 준 게 아닙니다. 알로 낳는 거, 태로 낳는 거, 화(化)해서 낳는 거, 질척한 데서 낳는 그 사생이 어떻게 해서 사생으로 빠지나? 인간이 까마귀가 될 수 있고, 부모가 죽어서 까마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이 어느 날 한 마디를 잘못 해서 백 마디를 잘못하게 되고, 만 마디, 천 마디를 잘못하게 돼서 독사지옥에 떨어졌더니, 독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니 아무리 내가 사람이라고 부르짖어 봐도 누가 독사라고 그러지 사람이라고 대해주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귀먹고 눈뜨지 못한 사람들은 까치 소굴에 들어가서 까치 새끼로 태어날 수도 있으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잘못하면 새 종류로 아마 태어나겠죠.

마음을 독하게 써서 독사지옥으로 떨어지고 이러는 것이 독사지옥으로 떨어지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서 그렇게 고를 당하고 그렇게 쫓기면서 쫓으면서 땅꾼한테 붙들려 다닙니다. 이거 한 가지 말을 했다고 그래서 고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더니 아, 몇 달 만에 다 큰단 말입니다. 사람은 어른이 되려면 십 년, 이십 년 삼십 년 이렇게 가지만 아, 그거는 단번에 어른이 되거든요. 금방 크면 금방 모가지 졸려서 죽고, 걸렸다 하면 죽고 몇 번이나 죽음을 당합니까?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그러니 얼마나 그것은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닭 사다 잡수시죠? 여러분이 닭이나 생선이나 꿩이나 무슨 돼지를 보세요. 돼지만 하더라도 돼지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일 년 이태 삼 년만 산다 해도 몇 번 죽음을 당할까요. 커서도 당하고, 작아서도 당하고, 근수만 나간다면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있느냐? 돼지에서 또, 또 출현을 하게 되죠. 그거 벗어날 수 없죠. 아주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 습을 익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모든 양면을 다 놔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공부를 하는 데는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부처도 뛰어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채식을 해야만 공부를 한다 이러거든요. 물론 공부할 때는 채식 아니라 채식도 없죠. 먹으려고만 생각한다면, 죽지 않고 먹으려고만 생각한다면 공부를 못 하니까, 물론 육식보다도 아무거나 먹고 그냥 공부하게 되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사생의 어떠한 것들은, 돼지나 소들은 사람들도 되니까요. 짐승이다, 사람이다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한 찰나 찰나 돌아가거든요. 사람이라도 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돼지도 돼지로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사생(四生) 가운데 한 점의 고기를, 이런 공부하는 사람한테 한 점을 공양하기가 천 년 만에 한 번 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 뜻을, 그 도리를 아시겠습니까? 예전에 경허 스님이 돼지 다리를 뜯고선 술을 한 병들이를 자셨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걸 흉을 볼 텐데, 그 분은 돼지 한 마리 하면 돼지 속의 돼지의 생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건 인연에 따라서 만남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두서없는 얘기 같지마는 진리는 순서 없는 게 진리니까요. 허허허. 아니, 글쎄 돼지 속에도 생명들이 인연에 따라서 드는 겁니다.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88년 9월 18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불교방송_성지순례 참가자 특별 모집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마음의 여행!!"

:: 인도 성지순례 ::

부처님의 향기가 서려있는 땅, 인도 그 광활한 대륙으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불교방송이 인도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룸비니동산, 부다가야, 녹야원, 쿠시나가라, 타지마할과 법화경 설법지 라지기르 등을 돌아보게 될 이번 성지순례는 10박 11일이고 출발은 10월 24일 입니다.

함께하실 지도법사는 신행상담실을 진행하시는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현각스님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705국에 530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도법사 : 현각스님(신행상담실 진행)
■ 동 참 금 : 1,950,000원
■ 포함내역 : 1억원 여행자보험, 공항이용료, 출국세, 비자비 등
■ 출 발 일 : 10월 24일(10박 11일)
■ 비 자 : 여권, 사진3장

바라나시에서 고프락까지 요리사 동행.
겐지스강을 가실 때 릭샤를 이용.

:: 미얀마 성지순례 ::

찬란한 불탑의 나라 미얀마!!
불교방송이 미얀마 성지순례에 불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부처님과 사리불, 목련존자의 사리를 모신 수도 양곤을 비롯해 세계 3대 불교유적지중의 하나인 파간과 소수민족들이 살고있는 헤호를 관광하고 "까바에 파고다"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과 정대불사법회도 봉행합니다.

함께하실 지도법사는 행복한 미소를 진행하시는 성전스님이며 이번 순례는 5박 6일 일정이며, 출발은 10월 27일입니다. 문의는 불교방송 전화 705국에 5301번에서 2번입니다.

■ 지도법사 : 성전스님(행복한 미소 진행)
■ 동 참 금 : 1,500,000원
■ 포함내역 : 1억원 여행자보험, 공항이용료, 출국세, 비자비 등
■ 출 발 일 : 10월 27일(5박 6일)
■ 비 자 : 여권, 사진3장

BBS 불교방송 www.bbsfm.co.kr 불교방송 문화사업단 연락처 02-705-5302